

資本主義의 黃金期 1950-1973: 戰後好況의 原因과 性格⁽¹⁾

梁 東 休

20세기 두 차례 대전 간의 혼란과 대공황, 그리고 1970년대 초반 이후의 상대적 경기침체 사이에 위치한 1950-1973년간의 세계적 호황을 ‘資本主義의 黃金期’라고 지칭하여 왔다. 황금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부터 1950년대 1960년대 대호황의 원인과 성격을 구명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傳統的’ 해석을 개관하고 최근 학계의 새로운 접근 동향을 검토한다. 대전후 제도적인 요인 변화를 중시하는 ‘協調均衡’ 게임이론, 19세기말 기술혁신 축적의 지연된 효과를 강조하는 ‘超長期 波動(one big wave)’ 가설이 돋보인다. 내생적 기술진보에 기반한 새성장이론은 황금기 역사의 해석에 그 유용성을 발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황금기의 도래보다 쇠퇴는 연구가 덜 되어 있다. 1950-1973년 기간이 평상시의 추세로 복귀하는 잠재적 국면인가 아니면 장기파동에 의해 다시 찾아올 순환적 국면인가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기대된다.

1. 머리말

시기적으로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와 오일쇼크와 일치하는 세계적, 특히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경제학자들이 설명해야 할 주요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불황국면이 장기화되자 오히려 두 차례 대전 간의 혼란과 대공황, 1970년대, 1980년대의 장기침체 양자 사이에 위치한 1950년대와 1960년대를 ‘資本主義의 黃金期’라 지칭하여 이 ‘大好況’의 원인과 성격을 구명하는 일로 과제가 바뀌었다(〈表 1〉 참조). 실제로 영국의 보수당 해럴드 맥밀런 수상은 1959년에 “지금처럼 좋은 시절은 결코 없었다”란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승리하였으며 1972년의 국제연합 보고서는 “1970년대 초반과 중반의 기저에 깔린 성장추세가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썼다(Hobsbawm(1994, p. 257, 259)). 그러던 것이 1982년 12월의 미국 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는 경기의 장기파동에 관한 분과토론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Mansfield(1983), Rosenberg and Frischtak(1983), Gordon, Weisskopf, and Bowles(1983)). 물론 1973년 무렵을 분기점으로 장기침체가 대호황기를 대체한 사실에

(1)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두뇌한국 21사업 대학교육개혁지원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초고를 읽고 유익한 도움말을 주신 이철희 교수께 감사드린다.

〈表 1〉 1人當 實質 GDP 增加率, 1820-1998(年率, %)

	1820-1870	1870-1913	1913-1950	1950-1973	1973-1998
서유럽	0.95	1.32	0.76	4.08	1.78
미국	1.34	1.82	1.61	2.45	1.99
동유럽	0.63	1.31	0.89	3.79	0.37
구소련	0.63	1.06	1.76	3.36	-1.75
일본	0.19	1.48	0.89	8.05	2.34
동아시아 16개국	-0.10	0.49	-0.08	3.83	3.30

資料: Maddison(2001, p. 186, 216).

대해 여러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듭하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1982년경의 학계가 '傳統的' 견해를 대표한다면 20년이 지난 올해까지에는 많은 새로운 모색이 있었다. 립 반 윙클이 캐츠킬 산에서 잠들었다가 허드슨 강변의 고향 동네로 돌아온 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그 만큼 환경이 바뀐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73년 이후의 경기침체, 아니 그보다도 1950-1973년의 대호황을 설명하는 전통적 해석을 개관하고 새로운 접근을 살펴봄으로써 '자본주의의 황금기'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좌표를 제공하고자 한다.⁽²⁾

우선 〈表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유럽(이하 계속 서유럽을 지칭함) 및 일본은 상황이 약간 달랐다. 2차대전에서 파괴가 거의 없었던 미국의 경우 '황금기'의 시작시기가 더 빨랐고 유럽 및 일본은 미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따라잡음(catch-up)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호황기에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미국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대량생산산업부문에 강세를 보였는데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 시장 덕분에 技術的 優位를 획득할 수 있었다. 戰間期에도 대량생산과 과학에 기초한 조직적 연구가 결합된 전기, 화학분야에, 전후에는 과학기술 인력 및 연구개발에의 막대한 투자효과가 돋보이는 하이테크 부문에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Nelson and Wright(1992)). 이와 같은 기술의 우위는 신산업 부문의 거대 기업조직에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의 실현, 대량투자, 대규모 유통·판매망 구축, 전문관리층의 형성 등에 의한 조직적 능력 배양으로 보완되어 지속적 성장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Chandler(1994)). 자연자원의 추출, 가공 등에 노력을 경주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Wright(1990), Romer(1996)). 반면 유럽이나 일본은 대전의 파괴에서 회복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였고 대호황기는 빠른 회복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일정 부분 미국을 따라잡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2) 1982년 이후 출간된 문헌에도 '전통적' 해석이 많다. 여기서 립 반 윙클이 얼마동안 잠들었는가는 패러디일 뿐이다.

것이며 이하의 논의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차대전 직후 혼돈상태를 벗어난 직후 유럽이나 일본은 1948년경부터 급속한 회복을 시작하여 1951년 정도면 이를 마무리하고 이후 20여년간의 황금기로 돌입한다. 이는 1차대전 이후 전간기 동안 물적 생산성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대공황을 겪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국내총생산에서 군비지출이 차지한 비중도, 전쟁 중 파괴 및 손실의 크기도 1차대전보다 2차대전 때에 분명히 더 컸으며 따라서 세계경제체제에 더 심한 타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후에 회복이 빠르고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미국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세계의 리더로 부상하여 국제적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있다. 관대한 武器貸與(Lend-Lease) 協約으로 전시채무부담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었고 브레튼우즈 회의에 의해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틀을 마련하였다. 폐허가 된 유럽의 곤궁을 수습하기 위해 구호원조(UNRRA)가 이루어졌고 이른바 마샬플랜(유럽復興計劃)을 통해서 1948-1951년 동안 공여와 차관의 형태로 총 130억 달러 이상이 유럽에 제공되었다. 즉 거시경제정책, 금융상황 및 국제무역협정 등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던 점이 중요하다(Feinstein, Temin, and Toniolo(1994) (1997, ch. 10.1)).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통적 해석과 새로운 접근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傳統的 解釋

미증유의 대호황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1960년대에 경제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순한 이론들부터 원용하기 시작하였다. 루이스(Lewis(1954))의 ‘無制限的 勞動供給에 의한 經濟發展’ 가설, 즉 전통부문에서 低雇傭(underemployed)된 勞動 ‘豫備軍’으로부터 낮은 임금의 노동을 탄력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공업부문의 생산이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는 저개발국 경제발전의 이론이 차용되었다. 킨들버거(Kindleberger(1967))는 탄력적 노동공급이 소득분배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고 이윤율을 높였으며 따라서 높은 투자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1950년 이후 구미 각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대규모 노동투입의 가용성이다. 노동공급은 높은 인구의 자연증가율과 여성 등의 노동력 참여율(미국, 네덜란드), 농업으로부터 공업과 서비스 부문으로의 이동(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민의 유입(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서 비롯되었다. 노동공급이 가속되지 않은 영국, 벨기에,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경우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다. 이와 관련하여 매디슨(Maddison(1964))은 국내총생산 중 투자의 비중이 엄청나게 증

가한 사실과 자본스톡에 기술진보가 체화되었음을 관찰하여 투자행위 자체가 생산성 향상 성과를 가져온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수출수요 및 전망도 투자를 증진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수출은 시장확대에 따라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며 국제수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투자자금 및 원자재 수입대금 조달을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황금기'의 輸出主導型 成長이라고 부른다(Lamfalussy(1961), Beckerman(1962), 이 부분은 Crafts and Toniolo(1996, ch. 1, sec. 3)의 논의를 따랐다.). 결국 여기까지는 전부 투자를 제고를 공통분모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투자와 성장 간 인과관계의 방향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투자수요를 따져보아야 할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한국전쟁 특수를 거론하기도 하고 다른 편으로는 미국경제가 일찍부터 호황인 점, 그리고 유럽내부의 상호교역확대를 강조하기도 한다(Temin(1995), Milward(1984), Lamfalussy(1961)).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를 여기서 언급할 수 있다.

전간기와 달리 2차대전 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총수요 안정정책으로 투자와 성장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한다(Boltho(1982)). 실제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려는 노력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금융환경이 성장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 반면 경기변동의 폭을 좁히는 정책은 이와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전후 통화정책이 케인즈주의적 '微細調整' (fine tuning)이라고 지칭하기 부적절하다(Crafts and Toniolo(1996, ch. 1, pp. 11-12)). 또한 케인즈주의적 안정화정책은 수요자극이 임금이나 물가보다 실질생산에 영향을 주어야만 투자와 성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터인데 이것은 노동시장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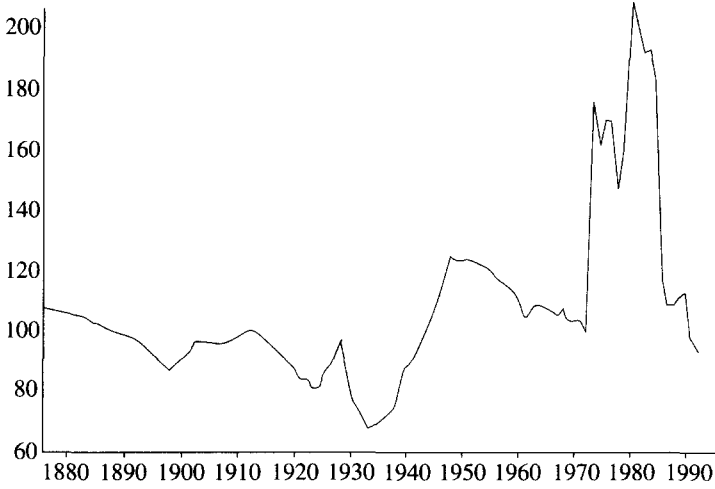
올슨(Olson(1965, 1982))의 利益集團 假說은 전후 대호황이 전시에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分配的 連帶(distributional coalition)들이 정리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기득권을 가지고 집단이익을 추구하던 분파들이 퇴출되므로 전시에 사회적 파급이 큰 나라일수록, 특히 패전국에서 전후성장이 빨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증분석에서는 '분배적 연대'의 강도와 특질을 측정할 대리변수가 마땅치 않을 뿐더러 '코포라티즘'의 각종 척도를 도입해 보아도 경제성과의 설명력이 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도 이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성장을 저해해야 되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도 합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독일 노동시장의 제도적 구조는 1920년대 독일의 경우와 닮았고(그리고 1940년

(3) 또한 미국의 경우 1950년대의 통화정책은 주로 인플레이 예방책이었다. 최근 한 경험적 연구는 1950년대 Federal Reserve의 정책이 1990년대와 매우 비슷하였다고 주장한다(Romer and Romer(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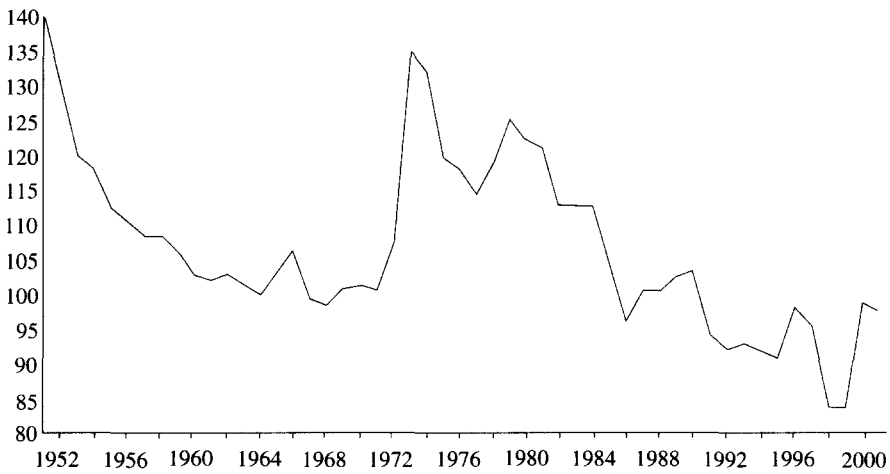
대에 독일의 硬化된 엘리트들이 숙청당하지 않았고) 20세기 어느 시점의 영국과 비교해도 비슷하지 않았다. 또한 전쟁, 점령, 정치적 혼란 등은 이익집단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확대발전시켰다는 것이다(Toniolo (1998, p. 254), Crafts and Toniolo (1996, ch. 4)). 이것과 관련하여 전쟁중 파괴가 심할수록 더 빠른 속도로 재건하는 경향이 있다는 논의가 있다 (spring back). 실제로 회복기(1947-1952년경)에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만 1950년대 1960년대 대호황기에는 합당한 설명이 못된다.

루이스(Lewis (1949, 1978)) 이래로 학자들은 기초상품의 공산품에 대한 상대가격의 변화추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1차상품 수출국의 교역조건과 연결된 경제상태를 파악하는 데 이 지표가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선진국들의 ‘황금기’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세계가격이나 미국의 가격을 막론하고 1차상품의 가격지수를 공산품 가격지수로 나눈 비율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시기가 선진국들이 ‘大量消費段階’에 진입한 때라면 기초상품의 상대가격하락은 한편으로는 실질임금 상승을 가속하여 대규모 소비수요가, 특히 소득탄력성이 높은 상품 즉 자동차, 내구소비재, 여행, 교육, 보건 등의 소비가 증대한 효과를 낳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원자재 가격하락은 이윤전망을 밝게 하여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Rostow (1978, 1985)).

흔히 거론되는 황금기 쇠퇴와 장기침체의 지속 요인을 몇 가지 더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황금기의 성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가 1973-1996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석유파동의 충격을 과장할 수 없다. 에너지의 실질가격은 1990년대 초가 되면 1972년 수준으로 복귀했던 것이다(<그림 1> 참조). 民間設備投資의 부족으로 장기침체를 설명하려는 데에도 무리가 따른다.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총요소생산성 성장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출-자본 계수의 정체 내지 하락을 의미하는데 민간투자부족설과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社會間接資本投資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와 거시경제 지표 간의 인과관계가 미묘할 뿐더러 사회간접자본의 다과로 국가별 생산성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政府規制, 특히 환경관련규제가 생산성 정체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미미하고 화력발전 같은 몇몇 특수산업에 그 영향이 국한되었다. 표준적 시험성적으로 측정된 교육의 질적 저하와 생산성과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Gordon (2001, p. 1)). 所得分配의 평등도와 성장의 관계도 관심거리이다. 2차대전 후 최근까지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영어권(북미,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에서는 불평등이 심할수록 성장률이 높았던 반면 유럽대륙의 경우 평등도와 성장



A. 제조업품 가격지수로 나눈 1차산품 가격지수(세계, %)



B. 완제품 가격지수로 나눈 원자재 가격지수(미국, %)

資料: Rostow(1985, p. 259, 260), 1983 이후는 UN Statistical Yearbook,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각 년도를 이용하여 계산.

〈그림 1〉 相對價格推移

동행하였다.⁽⁴⁾ 그러나 소득분배와 생산성 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이론이 아직 합의된 것이 없으므로 모종의 사회적 제도가 생산성과 소득분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리고 이 영향이 지역적으로 달랐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가설들은 단일요인으로 1950-1973년의 대호황을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많은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각 산업마다 환경이 다르므로 단일 원인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여도 데니슨(Denison (1967, 1982))처럼 절충적으로 고속성장에 기여했을 모든 가능한 요인을 열거하는 방법은 황금기의 특성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모든 생산요소투입량의 변화를 포함한 연후에 심지어 脫農 현상이나 범죄율까지를 언급하는 것이다.

3. 長期波動

콘드라티에프(Kondratieff)와 슈페터(Schumpeter(1939, 1943)) 이래로 景氣의 長期波動(long wave)에 관심을 두는 학자들이 늘어났고 '자본주의의 황금기'도 장기파동의 한국면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드물지 않다. 선구자들의 아이디어를 종합한 가설, 즉 資本主義의 內的 調節 메커니즘에 의해 기술혁신이 주기적으로 群集(cluster)을 이루어 나타나며 이것이 생산과 물가의 장기파동을 가져온다는 설명이 있다. 이것은 '불황이 이노베이션을 촉발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체를 회의하는 견해도 있을 뿐더러 파동의 주기가 40-60년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노베이션이 발명, 혁신, 전파, 투자행위, 생산성 제고, 산출증가 등의 경로를 따른다면 주요 기술혁신의 군집이 파동형태를 보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혁신이 자신의 성장과 쇠퇴의 경로를 따를 때까지 다른 대체적인 혁신이 배제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時間的인 間隔 機制(spacing mechanism)가 없다면 중첩되는 혁신은 순환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하여 주기적인 순환이 내생적 변화임을 밝혀야 할 터인데 오히려 歷史的 事件(historical accident)의 성격이 더 많다는 지적이 있다(Mansfield(1983), Rosenberg and Frischtak(1983)). 여기서 역사적 사건이란 體制 衝擊(system shock), 예를 들면 브레튼우즈 고정환율제의 붕괴라든가 제도적 정책혼합의 급격한 변경 같은 것을 말하며, 장기적으로 서서히 변하는 예로는 공업화나 정부역할의 증가, 기업규모의 변화나 노동조합의

(4) 유럽 대륙에서는 지니계수가 5-10% 포인트 하락하면 균제상태 노동생산성이 1% 포인트 상승한 반면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는 지니계수 5% 포인트 상승이 1% 포인트의 성장자극을 가져왔다(Brandolini and Rossi (1997), Toniolo (1998, p. 257)에서 재인용).

성장, 국제관계 즉 무역, 이민, 자본이동, 기술이전 등의 심화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Maddison(1991, pp. 108-111)].

어찌되었든 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지난 130년을(〈表 1〉에서는 180년 정도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기억하라.) 관찰하면 대략 몇 개의 局面(phase)으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다. 쿠즈네츠(Kuznets(1963, pp. 24-25))에 의하면 성장의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특징들에 의해 식별되어야 한다.
- (2) 이러한 특징들은 한 특정 국면에만 유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 (3) 이전 단계와의 분석적 관계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 (4) 다음 단계와의 분석적 관계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 (5) 단계구분이 적용되는 지리적 경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은 지나치게 결정론적이고 충족하기 어려운 사항임이 분명하다. 〈表 2〉는 1870년 이후 4개 국면의 특징을 나열한 것으로 ‘황금기’의 성격을 비교적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Maddison(1991, pp. 120-121)].

〈表 2〉에서 황금기로의 이행 및 황금기의 쇠퇴가 시스템 충격과 관련된 것이라면 일군의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장기순환이 자본주의 운행에 내재된 ‘法則’에 따라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황금기’는 장기파동의 상승국면이고 황금기 이후의 침체가 하강국면이라고 할 때 정상적인 축적조건이 회복이 도래한다면 다시 순환의 지속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패하면 장기침체에 빠진다는 것이다. 社會的 蓄積構造(SSA: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라고 불리는 제도집합을 강조하는 이들의 설명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Gordon, Weisskopf, and Bowles(1983)).⁽⁵⁾

이윤율에 따라 투자와 성장이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π 는 이윤의 크기, K는 자본스톡, Y는 생산, W는 임금총액, H는 노동투입시간이라 하면

$$\text{이윤율}(\pi/K) = \text{이윤몫}(\pi/Y) \times \text{산출자본비율}(Y/K)$$

$$\text{이윤몫}(\pi/Y) = 1 - \text{임금몫}(W/Y) = 1 - \text{시간당 임금}(W/H) \times \text{노동생산성의 역수}(H/Y)$$

가 된다. 순환적 침체에 산출자본비율이 떨어지면 이윤율이 저하하게 되는데⁽⁶⁾ 이때 고

(5) 이 가설을 ‘황금기’에 적용한 대표적인 저작으로 Marglin and Schor(1990) 참조. 프랑스의 조 질학파에서도 비근한 접근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glietta(1976).

(6) 근본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용어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의한 이윤율 저하에 해당한다.

〈表 2〉 局面別 시스템 特徵

	실업/물가안정 트레이드오프에 관한 정부정책의 입장	국제결제 체제의 성격	노동시장의 행태	국제무역 에서의 자유도	국제요소이동 에서의 자유도
I: 1870-1913 '자유주의 국면'	실업에 무관심	금(파운드)본위, 경직적 환율	약한 노조, 임금 약간의 하방 신축성	매우 자유스러움, 수량제한·외환 통제 없고, 관세가 유일한 장벽	거의 완전자유
II: 1913-1950 '인근 공평화 국면'	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해 대규모 실업 의식적으로 감수	鄉愁的 平價로 금본위복귀, 정부부채에 대한 분쟁, 1931 체제 붕괴 후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	임금 하방 신축성 정부가 강제	수량제한, 외환통제방법, 관세대폭인상	자본과 노동 이동 극심한 통제
III: 1950-1973 '황금기'	완전고용 우선	고정(경직은 아님) 환율, 대규모 국제 신용기관	강한 노조 임금 하방 경직성	자유무역과 관세동맹 방향으로 강력선회	자본노동이동 점진적 대폭 자유화
IV: 1973 이후 '조심스러운 목표의 국면'	물가안정 우선	체제붕괴 후 변동환율 및 EMS내 안정 지역확대	노조 약화	자유무역 유지	자본이동 자유증가, 노동이동 제한

資料: Maddison (1991, pp. 120-121).

비용기업을 퇴출시키고 잔존기업의 고비용 생산과정을 폐기함으로써 산출자본계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자본계수에 대한 순환의 효과는 기업 간 경쟁압력에 대한 순환의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윤몫에 대한 순환적 침체의 효과는 보다 복잡하다. 침체국면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하락하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상승한다. 임금과 노동생산성은 산업예비군의 규모와 관련하여 기업 간 경쟁압력 또는 노동에 비해 강화된 자본의 힘에 의해 변화한다. 이와 같이 침체기에는 이윤몫과 산출자본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발생하여 재생산적 순환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관이 작동에 실패하는 것은 SSA의 유용성이 침식된다는 의미이며 장기파동의 위기가 시작됨을 보여준다. 즉 고비용 기업과 고비용 생산공정이 제거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산출자본비율을 가진 산업부문에서 심각한 침체가 나타나고, 산업예비군효과가 시간당 임금을 인하하거나 노동투입당 산출을 높이는 데 실

패하면 이윤율을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사회적 축적구조가 생산물 시장, 노동시장, 노동과정, 국제적 교환, 정부지출 등을 조절하는 방식에 좌우된다.⁽⁷⁾

이제 社會的 蓄積構造論이 ‘황금기’ 설명에 어떻게 원용되는지 살펴보자.⁽⁸⁾ 세계 대공황의 유산으로 구미각국에 복지국가가 형성되었고 대전이후 케인즈주의적 總需要管理가 주요 거시정책으로 자리잡았으며 국제정치질서는 미국의 헤게모니 확립으로 특징 지워졌다. 복지지출과 수요관리는 노동자들이 부담할 실업비용을 낮추어 임금상승의 유인이 증가했으나 아직 대공황의 기억 때문에 임금은 당분간 일정수준에 머물렀다. 테일러리즘이 유럽에 확산되고 미국에서는 포디즘이 정착하여 노동생산성이 꾸준히 제고되었으므로 그만큼 이윤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저개발국의 원자재를 염가로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이윤이 증가할 여지를 제공하였으며 미국의 무역흑자는 달러화의 대부나 해외투자(recycling)를 가능케 하였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오면 ‘調整規則’이 많이 바뀐다. 공황의 기억이 사라지고 완전고용이 오래 지속되자 실업비용의 감소는 임금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였고 경제의 성숙도 심화와 함께 테일러리즘이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노조의 세력이 강해져서(‘勞動力’에서 ‘勞動’을 추출하는 과정이 더욱 힘들어져서) 생산성이 정체하였다. 또한 월남전패전이나 석유파동으로 노정된 바와 같이 미국의 헤게모니도 약화되었고 미국의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됨에 따라 기왕의平價에서는 달러화가 과대평가(인과관계는 양방향이지만)되어 태환성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인이 미국의 이윤율을 저하시켰고(‘完全雇傭 賃金壓迫’) 여타국가로도 악순환이 파급되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케인즈주의적 경기부양정책도 시도할 수 없었다. 결국 SSA가 원활히 운행하지 못하고 따라서 ‘황금기’도 쇠퇴하였다는 것이다.

4. 成長會計

대호황기가 옛이야기가 되고 침체국면이 장기화되자 전통적인 해석의 입장에서도 지난 날을 돌아켜보며 생각을 되새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이전에도 염두에 두었던 성장

(7) 최근 브레너(Brenner(1998))는 제조업 국제경쟁의 격화에도 불구하고 진입이 증대하고 고정비용의 존재 때문에 고비용 기업의 퇴출이 부족하여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 초래되었으며 이것이 제조업 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을 가하고 이에 따라 제조업 이윤율과 나아가서는 경제전체의 이윤율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즉 명목 산출자본비율(Y/K)을 가격과 실물척도로 구분, 실질 산출량이 아닌 산출가격의 하락이 근본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브레너의 견해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하회를 기대해 본다.

(8) 이 부분은 Marglin(1990)을 따랐다.

회계나 성장 회귀분석, 따라잡기와 수렴현상, 기타 분석들이 정치화되고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접근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솔로우 模型에서 經濟成長의 원천은 자본증가(확대된(augmented) 모형에서는 인적자본 포함)와 인구증가, 그리고 기술의 발전(總要素生産性,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혹은 앞의 두 요소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즉, 경제가 지난 해보다 많은 생산물을 생산한 것은 투입(자본 혹은 노동)이 증가하였거나, 혹은 동일한 투입으로 보다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생산함수를 Cobb-Douglas 형태로 가정함으로써 보다 유력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 중 중요하거나 혹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첫째, 자본의 증가가 1인당 생산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궁극적으로 사라진다. 둘째, 앞의 결론에 의해 저축률이 동일하다면, 두 국가 간의 1인당 생산은 출발점과 관계없이 같아질 것이다(收斂現象). 셋째, 均齊狀態(steady state)에서의 성장률은 자본의 증가율과 관계없이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속도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넷째, 그러므로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성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물론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정책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결론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연구자의 주관과 연구주제에 달려 있겠지만, 기술의 성장이 어떤 것인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과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자본, 기술 등 축적되는 요소의 증가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험적으로 국가 간의 수렴현상이 모든 국가 간에 그리고 모든 시기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 등이 비판의 주된 내용들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솔로우 모형에 의한 성장방정식은 연구의 좋은 출발점이 되는데, 그 이유는 자본과 노동의 질을 특정 연도로 고정한 상태에서 경제의 성장이 단순한 투입량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장방정식의 형태는 통제하려는 변수의 수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dot{Y} = \alpha \dot{K} + (1-\alpha) \dot{L} + \sum \beta_i \dot{X}_i + \varepsilon$$

의 형태로서, 생산증가를 요소투입증가에 의한 부분과 TFP 상승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表 3>에 황금기에서 특히 TFP의 비중이 매우 컸으며 정체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TFP 하락이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기술진보와 자본투입 간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자본스톡의 크기에 따라 TFP

〈表 3〉 成長의 源泉 1950-1992 (年率, %)

	프랑스		독일		일본	
	1950-1973	1973-1992	1950-1973	1973-1992	1950-1973	1973-1992
GDP	5.02	2.26	5.99	2.30	9.25	3.76
노동시간	0.01	-0.32	0.00	-0.27	1.01	0.43
교육	0.36	0.69	0.19	0.12	0.52	0.46
노동력 참여율	0.00	0.00	0.32	0.00	0.88	-0.11
비주택 자본스톡	1.44	1.30	1.89	1.01	2.76	2.04
설비재 가동	0.00	0.00	0.19	0.00	0.38	0.00
노후 효과	0.15	-0.04	0.12	-0.08	-0.08	-0.07
TFP	3.06	0.63	3.28	1.52	3.78	1.01
해외무역효과	0.37	0.12	0.48	0.15	0.53	0.09
따라잡기	0.46	0.31	0.62	0.31	0.98	0.39
산업구조변화	0.36	0.15	0.36	0.17	1.22	0.20
규모의 경제	0.15	0.07	0.18	0.07	0.28	0.11
설명된 성장	3.30	2.28	4.35	1.48	8.64	3.54
설명안된 부분	1.72	-0.02	1.64	0.82	0.61	0.22
설명율 (%)	66	101	73	64	93	94

	네덜란드		영국		미국	
	1950-1973	1973-1992	1950-1973	1973-1992	1950-1973	1973-1992
GDP	4.74	2.14	2.96	1.59	3.91	2.39
노동시간	-0.05	-0.05	-0.11	-0.40	0.81	0.86
교육	0.43	0.57	0.13	0.42	0.48	0.43
노동력 참여율	0.00	0.00	0.00	0.00	0.00	0.00
비주택 자본스톡	1.37	0.88	1.55	0.99	0.98	0.94
설비재 가동	0.00	0.00	0.00	0.00	0.00	0.00
노후 효과	0.13	-0.06	0.09	-0.06	0.07	-0.04
TFP	2.86	0.80	1.30	0.64	1.57	0.20
해외무역효과	1.32	0.32	0.32	0.15	0.11	0.05
따라잡기	0.41	0.24	0.08	0.20	0.00	0.00
산업구조변화	-0.07	-0.12	0.10	-0.09	0.10	-0.17
규모의 경제	0.14	0.06	0.09	0.05	0.12	0.07
설명된 성장	3.68	1.85	2.25	1.26	2.67	2.14
설명안된 부분	1.06	0.29	0.71	0.33	1.24	0.25
설명률 (%)	78	86	76	79	68	90

資料: Ark and Crafts (1996, p. 5, 59).

의 기여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Boskin and Lau (2000)). TFP의 중요성은 영국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더 컸다. 생산요소 중에서 인적자본(교육)의 기여도가 큰 것도 팔목할 만하다. TFP의 내용을 보면 따라잡기(catch-up, 미국의 첨단기술을 도입)가 눈에 띄는데 절대적 크기에서는 황금기에 두드러지나 그 비중은 정체기에 오히려 커서 따라잡기는 장기간 계속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表 4>에서도 알 수 있다.

전후, 특히 '황금기' 동안 서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초기 소득수준이나 생산성이 낮은 나라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1950년에 중위 소득(median) $\pm 8\%$ 내에 위치한 나라가 들어었는데 1990년에는 아홉으로 늘었다(Ark and Crafts (1996, p. 2)). 따라잡기는 국가수준 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관찰되고 있는데 아브라모비츠(Abramovitz (1986))가 경고한 대로 자동적 과정은 아니며 '社會的 成長能力'(social capacity for growth)에 의존한다. 독일과 영국의 전후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이는 자명하다. 2차대전후 따라잡기를 위한 '사회적 능력'이 증가한 배경은 다양하다. 시장의 크기, 요소비용, 지방에 특수한 기술의존도의 하락, 다국적 기업, 국제무역 등 모든 요인들이 대전 이후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였고, 특히 점령지역에 이익집단들의 경직성이 줄어들었으며, 무역자유화와 함께 규모의 경제, 경쟁, 합리화, X-효율성 등을 실현하였다. 누진소득세, 복지지출, 투자촉진, 기술이전과 생산요소이용의 효율제고 등 정부정책도 따라잡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Crafts (1995, sec. III)). 달리 표현하여 유럽의 경우 따라잡기 성장잠재력은 2차대전 이후에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실현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첫째, 인적자본 대 물적자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전시에 공장설비나 사회간접자본의 파괴가 심했으나 교육은 지속되었던 것이다. 둘째, 이전가능한 대량생산 기술이 소득탄력성이 큰 수요패턴과 합치되었다. 셋째, 전후처리에서 1차대전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었다. 19세기 자유주의적 자본제의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국민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동적인 노동시장제도의 창출이다. 특히 자본장비율, 실질임금, 생산성 등이 높은 이윤과 안정적 소비수준에 걸맞게 균형성장을 이루었다(Toniolo (1998, sec. III)).

따라잡기(catch-up)는 長期的인 收斂現象(convergence)과 관련이 있다. 無條件的 收斂은 모든 나라가 동일한 생활수준 또는 생산성으로 이동한다는 것이고 條件附 收斂은 경제가 균제상태(steady state)의 생산성 수준이나 성장률로 접근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지만 각 경제마다 균제상태가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따라잡기 구심력을 상쇄할 만한 다른 종류의 원심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렴의 회귀방정식이 예를 들어

초기 노동생산성 수준(Y/L_0)과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g_{Y/L}$)의 관계를 나타내는 $g_{Y/L} = a - b(Y/L_0) + cZ$ 라 할 때 $c = 0$ 이면 무조건 수렴, $c \neq 0$ 이면 조건부 수렴(여기서 Z 는 균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여타의 독립변수)이 되며 b 는 수렴과정의 속도를 나타낸다. 때로는 c 의 값이 서로 같은 收斂集團(convergence club) 별로 地域的 收斂(local convergence)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內生的 成長理論을 논의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자[Ark and Crafts (1996, pp. 328-329)]. 따라잡기의 속도와 규모가 황금기에 더 크고 침체기에 줄어드는 것은 전후 복구 이후 25년간 생산가능곡선이 급속하게 팽창하였고 잠재력을 “實現”할 가능성이 특별히 높았기 때문이며 차츰 자원과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갔다는 “消耗 假說”(depletion hypothesis)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Nordhaus (1982)].

5. 새로운 接近

위에서 살펴 본 전통적 해석에도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하에서 다룰 ‘새로운’ 접근도 오래 전에 이미 그 맹아가 존재했다. 편의상 구분한대로 여기서는 아이켄그린(Eichengreen (1994, 1996a))의 ‘賃金節制’(wage moderation), 또는 協調均衡(cooperative equilibrium) 假說; 내생적 기술진보에 근거한 새 成長理論(new growth theory)을 원용한 ‘황금기’ 설명[Crafts (1995), Crafts and Toniolo (1996), Ark and Crafts (1996)]; 그리고 고든[Gordon (1999, 2001)]의 생산성 성장의 超長期的 波動(‘One Big Wave’)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황금기의 성장은 따라잡기(catch-up과 spring back)로 일부 설명할 수 있으나 높은 투자율과 무역확대, 그리고 이들을 가능케 한 제도적 요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동태적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노동자가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는 대가로 기업도 배당금 지급 대신 투자를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상호이익인 고성장 協調均衡이 존재할 것이다. 이 균형은 두 측의 의사결정 시점이 다르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 즉 새로운 투자를 위해 유동성이 필요하므로 임금의 희생이 투자행위에 선행되어야 하는데 일단 임금억제가 이루어진 후 합의를 어기고 투자 대신 이익배당을 챙김으로써 자본가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투자가 시작된 후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자의 몫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양측이 공히 합의를 지키지 않게 되어 저투자 저성장의 非協調的 均衡으로, 소위 ‘최수의 딜레마’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으나 2차대전 이후에는 협조균형을 촉진할 메카니즘이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장기계약, 노사정 협의체 구성, 임금물가통제, 임금협상의 중앙집권화 등이 그것이다. 포

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발달이 늦지만 구체적인 노사협조 촉진제도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는 정보의 확산과 합의 준수 여부의 감독이다. 여기에는 독일의 共同決定制度(Mitbestimmung), 오스트리아, 홀란드의 노사정 위원회, 여러 나라의 勞使協議會(works council) 등이 있다. 둘째는 본당(bonding), 즉 협약위반시 상실케 되는 본드(bonds)의 조성이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의 공기업으로부터의 원자재 공급이나 보복과세의 도입, 독일의 정부보조금, 독일·스웨덴의 이윤세 또는 이윤의 일정부분을 정부에 예치토록 하는 조치, 벨기에의 조건부 사회보장제, 노르웨이·스웨덴의 노동조건 개선, 교육훈련, 각종연금제도, 연금의 물가연동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협약의 중앙화와 코포라티즘 등 조절 메카니즘이다.

투자가 증대하여도 시장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국제무역, 유럽의 경우 유럽내부 무역의 확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수출지향적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비용이 수반된다. 유럽내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제도들이 황금기의 고성장을 보장한 면이 크다. 유럽支拂同盟(EPU: European Payment Union)은 1950-1958년까지 활동하였는데 경상거래 제한을 없애고 태환회복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지역적 브레튼우즈 체제'였다. EPU는 이전의 쌍무적 계약에서 다자간 계약으로 무역의 확장을 가능케 하였으며 EPU의 금융대리자인 國際決濟銀行(BIS: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에만 지불 책임이 있고 IMF 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EPU는 미국에 대해 차별대우를 허락받았고 1958년 태환재개의 전기를 마련하였다(Eichengreen (1995, pp. 187-191) (1996b, pp. 106-113)). 슈만계획에 의거한 유럽石炭鐵鋼共同體(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는 독일의 석탄 및 코우크스와 프랑스의 철광석 간 무역을 대상으로 한 관세동맹으로서 무역확대는 물론 유럽통합의 장도에 내디딘 첫걸음이기도 했다. 마샬援助(Marshall Plan)의 조건, 즉 규제완화, 자유화의 요구와 함께 수혜국들에게 원조액 사용계획을 공동으로 제출하라는 요구는 유럽經濟協力機構(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이것은 OECD의 전신임)를 결성케 하였으며 이것도 유럽통합에 기여한 바 크다.

1948-1951년에 걸쳐 130억 달러에 달한 마샬원조에 대한 해석도 그동안 변천을 겪었다. 古典인 견해는 유럽의 복구자금부족, 특히 자본재 수입을 위한 외환부족을 해결하여 투자재원 조달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修正主義的 해석에 의하면 유럽의 전후회복은 마샬원조 이전에 시작하였으며 액수도 총 투자액의 10% 정도에 불과해 원조가 없어도 회복이 가능했다. 원자재 수입을 위한 외환이 필요했지만 수입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직접·간접으로 유럽경제에 차지한 비중은 작았다(Milward

(1984)]. 최근의 해석은 政治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다. 마샬원조가 투자촉진, 수입증가, 인프라재건 등에 준 영향보다 정치적 불안정, 소비재 부족, 금융혼란의 위험 등으로 생산자들이 상품을 퇴장시키고 노동자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市場危機’를 극복하게 해주었다는 것, 물가 및 환율을 안정시키고 시장에 대한 믿음을 제공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Eichengreen and Uzan(1992), DeLong and Eichengreen(1993)]. 또한 파이를 키움으로써 분배분쟁을 해결한 면이 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을 무마하고 중도파의 입지를 상승케 했다(Eichengreen(1995, pp. 16-21)]. 결국 국내에서는 임금자제와 고투자의 協調均衡으로⁹⁾ 국외에서는 국제규약 또는 초국가적 기구설립 등으로 市場擴大가 가능하여 황금기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EPU, ECSC, 마샬원조 등 유럽에 국한된 제도 외에 더욱 포괄적인 환경에서 국제무역의 증대에 기여한 환경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貿易自由化는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협조에 의해서만 효과가 나타난다. 關稅와 數量制限(quota)을 동시에 인하하도록 조정할 목적으로 國際貿易機構(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설치하는 아바나 헌장(Havana Charter, 1947-1948, 56개국 참여)은 안타깝게도 미국 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보호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다른 한편으로는 완벽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예외규정, 즉 완전고용이나 경제발전가속, 상품수출 가격의 안정화 등을 추구하는 나라에 무역장벽 완화를 유예해주는 조항 등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비준안은 양측에서 공격받았을 뿐 아니라 상정되지도 못하였다. 어떻게 보면 ITO 헌장은 냉전의 희생물이라 할 수 있다. 소련과의 갈등이 불거진 후 우선순위는 마샬계획과 NATO에 주어졌던 것이다(Eichengreen(1996b, p. 101)]. ITO가 실패하자 ITO 설립과 동시에 추진되던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 23개국 참여)이 이를 대신하였다. 원래 독립된 기관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고 ITO에 흡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할 잠정적 협정에 불과했던 GATT는 ITO의 무산으로 국제통상정책을 조정할 유일한 기구가 된 것이다. 실제로 1964-1967년의 케네디 라운드 이전에 GATT에 의해 관세나 수량제한이 그다지 완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역자유화 의지의 확고함과 표준설정의 투명성이 신뢰를 불러 일으켜 안정적 무역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Irwin(1995)].

IMF(1947년 개설)와 브레튼우즈체제(1944년 합의), 즉 調整可能한 固定換率制(adjustable peg)라는 국제통화제도는 초기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상징적인 가치를 평가해

(9) 앞서 언급한 탄력적 노동공급가설이나 사회적 축적구조론에서의 저임금 설명과 다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에 이미 노동조합이 강력해졌음을 강조한다.

야 할 정도였으나 1958년 태환정착 이후로 환율 안정, 인플레이 억제 등을 촉진함으로써 각국의 거시정책의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경기후퇴기에도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하여 1960년대의 지속적 고성장에 일조하였다. 초기에는 미국의 흑자 누적으로 유럽국가들은 외환(달러) 부족 사태에 봉착하였고 1947년 7월 영국 파운드화의 태환성 회복 노력은 한달만에 실패로 끝났다. 1949년에는 거의 모든 유럽통화가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1947-1953년 동안 IMF에서 8억 1천 2백만 달러, 世界銀行(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서 7억 5천 3백만 달러가 유럽에 공여되었다. 이는 1948-1951년간 마샬원조액 1백 30억 달러에 비하면 미미하기 짝이 없다. 마샬원조 시작 전에 대부분이 그나마 숨통을 틔웠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전후 혼돈을 해결하는 데 브레튼우즈 체제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국제 수지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면 성장 및 고용이 침체되므로 EPU의 동의 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수입규제, 외환통제, 평가절하, 긴축재정 등으로 외환문제를 해결하였다. 마샬원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는 논의의 대상이지만 유럽과 일본이 착실히 성장함에 따라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1958년에는 유럽각국이 경상계정 태환회복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후 1960년대에는 평온한 가운데 황금기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가 1971년까지 유지된 것 자체가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1960년대에 무역장벽이 빠른 속도로 완화되면서 국제수지 조정 메카니즘의 한계가 부각되었다. 경상계정 태환회복 후에는 수입규제를 유지하기 곤란한 면도 있었다. 자본유출제한 등 자본계정 규제강화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다국적기업이나 유로커런시 시장의 존재로 인해 적자국의 운신폭은 제한되었다.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국제협력으로 1971년까지 끌고 갈 수 있었으나 자본이동성의 가속 때문에 조정 메카니즘을 결여한 고정환율제는 막바지에 달했다(Eichengreen(1996b, ch. 4)).

기본적인 솔로우 成長模型에서 技術進步, 즉 TFP는 외생으로 주어지거나 따라잡기와 규모의 경제 같은 단순한 구성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음은 앞 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TFP가 외생이면 생산요स्त투입의 수확체감 경향 때문에 성장이 소진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TFP 증가율이 내생적이고 연구개발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면 수확체감은 장기적으로 극복된다고 할 수 있다. 학습효과에서와 같이 外部性(externality)이 발휘되어 한계수확이 체감하지 않고 경제내에 스피로버效果(spillover effect)가 발생하면 생산성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지속성장이 가능해진다. 어느 쪽이든 이윤동기에 의한 기술적 지식에의 투자가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표준적인 신습페터 모델은 불완전 경쟁 하에서 연구개발 부문에 투여되는 자원의 규모가 시장의 크기, 인적자본의 공급가격, 수익의 專有可

〈表 4〉 Levine-Renelt 모델에 의한 유럽 10個國 1人當 成長에의 寄與度(연율, %)

	1923-1938	1950-1973	1973-1989	가속	감속
	(1)	(2)	(3)	(4)=(2)-(1)	(5)=(3)-(2)
상수	2.01	2.01	2.01	-	-
초기 1인당 GDP	-2.43	-2.49	-3.55	-0.06	-1.06
투자/GDP	1.42	2.22	2.06	0.80	-0.16
중등교육 취학률	0.16	0.68	0.79	0.52	0.11
초등교육 취학률	1.90	1.99	1.79	0.09	-0.20
정부지출/GDP	-0.62	-0.87	-1.27	-0.25	-0.40
추계치	2.44	3.54	1.83	1.10	-1.71
실제 성장률	2.12	3.84	2.14	1.72	-1.70

資料: Crafts and Toniolo (1996, p. 18).

능性(appropriability) 등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內生的 技術進歩를 상정한 새成長 理論(new growth theory)에는 신기술에의 투자를 모형에 넣기 위해 불완전 경쟁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의 모형들은 생산함수에 품질조정된 중간재를 넣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투자가 기술혁신의 기회를 높인다는 가설을 반영하고 있다.⁽¹⁰⁾

다시 성장회귀방정식으로 돌아온다면 새성장이론에 새로이 등장하는 변수는 人的資本(대리변수로 교육(취학률)을 사용), 知識의 成長(적절한 대리변수를 찾기 힘들), 그리고 制度(이것은 무슨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가) 등이다. 물론 여기에 연구개발, 학습효과, 시장의 크기, 요소공급가격, 수익의 전유 가능성, 중간재에 체화된 품질수준, 스피오버, 국제무역과 다국적기업 등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추가하면 좋겠지만 아직 대리변수도 방정식의 형태도 오리무중이다. 레바인-르넬트(Levine and Renelt(1992))의 접근을 원용하여 10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자료로 성장회귀식을 추계(EBS 기법⁽¹¹⁾ 이용)한 것이 〈表 4〉이다. 크라프츠 [Crafts(1995, pp. 437-438), Crafts and Toniolo(1996, sec. 5-6)]에 따르면 內生的 成長理論은 아직 발전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表 4〉에서도 몇 가

(10) 예를 들어 품질사다리 모형(quality-ladder model)과 다종부품투입모형(variety growth model)에 관하여는 김신행(1999, 9장 및 10장) 참조. 필자는 다른 곳에서 새성장이론을 간략히 소개한 적이 있다. 양동휴(2001, sec. 6-7).

(11) EBA(extreme bounds analysis)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변수들을 추가 또는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관심있는 변수의 회귀계수의 robustness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즉 여타변수 집합의 변화에 따라 0.05%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관심변수 회귀계수의 구간을 일단 정하고, 상한치는 극대치+(표준편차×2), 하한치는 극소치로 한정하여 양쪽 한계치에서 계수가 유의하고 부호가 같을 때 robust, 그렇지 않으면 fragile로 판정한다(Levine and Renelt(1992, p. 944)).

지를 읽을 수 있다. 즉 따라잡기와 조건부 수렴이 보인다. 투자와 교육을 합친 廣義의 資本(broad capital)의 기여도가 전간기에 비해 황금기에 특히 중요했고 그중 人的資本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황금기의 성장가속 중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크다. 즉 <表 4>의 (4) 열에 의하면 3분의 1가량이 된다. 이것은 전후 따라잡기 잠재력의 확대와 전간기의 보호주의 및 수요충격 등을 반영했을 것이다. 1973년 이후의 성장둔화는 회귀식으로 잘 설명되는데(<表 4>의 (5)열) 따라잡기 가능성의 소진과 정부지출의 비대가 주된 요인이었다. <表 4>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노동시간당 GDP는 빠른 속도로 수렴했으며 β 수렴(시간당 GDP 수준의 수렴)과 σ 수렴(시간당 GDP의 분산의 감소)이 동시에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은 서로 다른 '收斂集團'에 속해 있었다. 즉 기술적 잠재력 자체의 차이가 지속되었다. 황금기는 장기추세 경로로의 급속한 복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바인-르넬트 회귀식은 새성장이론 뿐 아니라 확대된 솔로우 모형과도 부합하는 것이다.⁽¹²⁾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기술혁신의 축적이 뒤늦게 생산성 및 산출증가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는 견해가 각광받고 있다[Gordon(1999, 2001)]. <表 5>는 미국의 자료(주로 Kendrick(1961)이 정리한 BEA 자료와 1948년 이후 BLS 자료의 연결)를 이용하여 1871-1996년 기간의 TFP를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 구성調整이란 노동투입에 연령, 성별, 교육정도의 변화를, 자본투입에서 구조물과 설비의 구

<表 5> 미국의 非農業, 非住宅, 民間企業部門의 產出과 TFP 增加率, 1871-1996(年率, %)

기간	산출	TFP		
		(1)	(2)	(3)
1871-1891	4.41	0.56	0.21	0.21
1891-1913	4.43	1.20	0.86	0.86
1913-1928	3.11	1.43	1.01	1.01
1928-1950	2.75	1.90	1.01	1.01
1950-1964	3.68	2.35	1.67	1.86
1964-1972	4.23	2.07	1.54	1.69
1972-1979	3.60	1.12	0.75	1.04
1979-1988	3.14	0.90	0.04	0.34
1988-1996	1.98	0.67	0.11	0.26
감속률, 1972-1996 vs. 1913-1972	-0.37	-1.02	-1.12	-0.79

註: (1) 조정이전, (2) 구성조정치, (3) 구성조정 및 자본량 조정 이후.
資料: Gordon(1999, p. 124).

(12) Mankiw *et al.*(1992), Levine and Renelt(1992, p. 945, fn. 5)에서 재인용.

성변화를 감안함을 말하며 資本量 調整은 순투자율에 대응한 자본연령의 변화를 고려했음을 뜻한다. <表 5>의 수치는 비농업, 비주택 민간기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어느 쪽을 보아도 TFP는 저속-고속-저속의 超長期波動("one big wave")을 그리고 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TFP가 월등히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19세기 말, 20세기 초 소위 '2次 産業革命' 기간에 시작한 4대 技術革新 群集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효과가 정점에 도달하고 경제전체에 전파된 것이 '황금기'이며 수확체감에 따라 생산성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4대 발명 군집은 첫째, 전기: 전기조명, 전기모터, 가전제품, 냉방장치; 둘째, 내연기관: 자동차, 항공기, 부수적으로 郊外, 고속도로, 슈퍼마켓; 셋째, 석유와 '분자재배열' 공정: 석유화학, 합성수지, 의약품; 넷째, 오락, 통신, 정보혁신: 전신, 전화, 라디오, 영화, TV, 음악레코드, 신문잡지의 대량보급 등이다. 생산성 자체보다 소비자 후생을 감안한다면 다섯번째 발명 군집을 추가할 수 있는데 室內配管과 공공인프라가 그것이며 상하수도, 오물처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기술혁신은 19세기와 20세기 인류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고든(Gordon(2001))은 기술혁신의 군집이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는 데 긴 시차가 있음을 설명하는 요인을 부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는 이민이 매우 중요했고 노동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임금을 압박하였으며 노동절약적 설비의 도입을 지연시켰다. 1940년대에는 실질임금의 수렴, 즉 불평등의 감소가 관찰되는데 미숙련 노동 수요가 높은 기술이 동시에 도입된다면 미숙련 임금의 상승은 효율향상을 자극하여 생산성을 높였을 수 있다. 또한 1922년과 1930년의 高率關稅(Fordney-McCumber Tariffs와 Smoot-Hawley Act)가 국제무역을 감소시켜 생산성 상승을 지연시켰다. 마지막으로 자본구성에서 설비-구조물 비율이 1945년경에 급속히 높아진 것에 주목하자. 電動機 革命에 의해 공장설계가 공간절약형으로 바뀌고⁽¹³⁾ 공장의 지리적 밀집현상도 정점을 지나 분산경향으로 발전하였다. 공장설계와 공장입지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TFP 상승이 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黃金期の 衰退

'전통적' 해석이건 '새로운' 접근이건을 막론하고 자본주의 '황금기'의 도래를 가능케 한 요인이라는 동전의 뒷면을 보면 1973년 이후 경기침체의 원인과 성격을 짐작할 수 있

(13) 전동기 혁명과 예를 들어 1920년대의 group drive에서 unit drive로의 전환은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David and Wright(1999, pp. 1-5)).

다. 대부분의 설명요인들이 1950-1973년 기간을 거치는 동안 설명력을 소진하였거나 환경이 바뀌어 그 효과를 상실하였다. 예를 들어, 따라잡기만 하여도 수렴현상이 진전될수록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社會的 成長能力'이 소진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가능성이 고갈되며 자원과 아이디어가 '소모' 되므로 그 속도가 느려질 것이 예상된다. 다른 해석들도 비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 '賃金節制'에 의한 協調均衡도 불안하여 이미 1960년대 말에 임금폭발 현상이 나타났다. 투자의 수익체감 때문에 이윤율이 저하하고 또한 증세 등으로 정부부문에서 잉여를 점차 많이 흡수하게 되자 분배의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노사협약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못했다.⁽¹⁴⁾ 이는 규모의 경제가 한계에 달하고 생산기술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수요패턴이 제조업보다 서비스 쪽으로 변화하는 경향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2차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성장은 포디즘적 생산기술에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배적 대량생산기술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한 대규모 임금협약을 통해 분배갈등을 해결하고 '임금절제'와 고투자의 협조균형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높은 숙련을 요구하는 다양한 고품질 생산과 유연전문화 시대가 도래하자 포디즘은 쇠퇴하고 이런 경우 노사협상의 중앙집권은 임금인상과 실업증가를 촉발하여 오히려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 과학적 지식을 더욱더 요구하는 시대에는 중앙화된 노동시장제도들은 분산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Eichengreen and Iversen (1999)).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임금상승, 월남전, 나중에는 오일쇼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서 정부는 강력한 緊縮政策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황금기의 대호황에 종지부를 찍는 시발점으로 작용하였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필연적 붕괴도 황금기 쇠퇴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국제자본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점점 힘들어졌고 노동시장의 경직화와 참정권 확대 등 정책 환경의 政治化 때문에 고정환율 유지는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다. 황금기의 도래보다 쇠퇴는 아직 연구가 덜 되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황금기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1950-1973년 기간이 평상시의 추세로 복귀하는 潛在的 국면인가 아니면 장기파동에 의해 다시 찾아올 循環的 국면인가일지도 모른다. 유럽通貨同盟의 출범 등 국제금융체제의 변화, WTO 정착과 뉴 라운드 등 무역질서의 재편,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헤게모

(14) 3장 마무리에서 언급한대로 SSA론자들은 노동력에서 노동을 추출해내는 문제가 불거진 '완전 고용 임금압박'을, 브레너는 제조업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 초래한 수출가격 저하에 따른 투자 수익을 하락을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으나 아직은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기술적·제도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다수설인 듯하다.

나 유지를 위한 노력 등 국제환경과 황금기에서처럼 노사간 협조균형을 가져 올 분위기가 다시 찾아 올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19세기 말-20세기 초의 技術革新 群集이 재래할 것인가가 관심사이다.

1990년대 후반에 주로 미국에서 반짝했던 情報通信技術(IT), 그리고 생명과학, 신소재 산업에 기반을 둔 ‘新經濟’가 과연 새로운 황금기의 도래를 예고하는지도 의문이다〔양동휴(2001, sec. 8) 참조〕. 신경제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가속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전기, 화학, 자동차 산업이 주도한 ‘第2次 産業革命’을 능가할 만큼 새로운 것이며 이에 따른 생산성의 지속적 상승이 ‘새로운 경제’로의 관문을 열었다고 한다. IT혁명은 IT산업뿐 아니라 구산업 및 서비스에도 시장효율과 이노베이션을 전파하고 세계화의 선봉이 된다. 투자와 이윤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재고량이 감소하며 경기변동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분야(컴퓨터, 소프트웨어, 텔레콤, 인터넷)에의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 상승기록으로 반영되지 않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를 ‘生産性的 逆說’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생산성(노동생산성과 TFP)이 급격히 상승하였고(불행히도 2001년 이후의 성과는 비관적이다.) 이것이 신경제 장기파동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린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생산성 역설’은 一般目的技術(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¹⁵⁾의 경우 잠재력이 실현되기 전에 즉 체제전환을 위해 구조조정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David(1990), Aghion and Howitt(1998, pp. 243-252)〕. 전동기 혁명과 IT혁신을 유추하는 한 시도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은 아직도 초기단계라는 것이다. PC의 계산능력 증가속도는 천문학적이지만 업무조직의 구조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GPT의 특징적 경로를 답습하느라 과업별 생산성이 높아질 기회가 늦어졌다. 부분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룬 PC로서는 조직들의 정보처리 행위를 전반적으로 재건축하기 힘들었다. 이제야 특수과

(15) 일반목적기술(GPT)이란 특정한 신제품이나 특정제품을 만들기 위한 신공정이 아니라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GPT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 개량과 정교화의 여지가 크다.
- (2) 넓은 범위의 사용처에 응용할 수 있다.
- (3) 다양한 제품과 공정에 잠재적 실용성이 있다.
- (4) 기존 기술 또는 가능한 신기술과 강한 보완성이 있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GPT의 목록을 만든다면 水車, 증기, 전기, 내연기관 같은 동력 전달시스템, 철도, 자동차 등 교통혁신, 또 레이저, 인터넷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 개념을 더 확대해석하여 공장제도, 대량생산, 유연전문화 등 ‘組織技術’이나 화학공학 같은 지식의 제도적 구조에도 적용 가능하다〔Helpman(1998, pp 38-43, 167-192)〕.

업 전문 IT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network server 역할이 가능한 PC가 개발되었다. 공장전기화에서 unit-drive system의 도입으로 공장설계의 혁신을 이루었듯이 IT의 발달은 결국 새로운 형태의 업무조직, 범조직적 자료처리의 방향으로 폭발할 것이며 그때에야 TFP가 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David and Wright(1999, sec. 4, 5)). 신경계 회의론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1995-2000년간 TFP 성장가속의 효과는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반도체 제조업을 비롯한 특정 내구재산업에 집중되었으며 경제의 88%를 차지하는 비농업 내구재부문 전체로는 오히려 TFP 성장속도가 상당한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Gordon(2000, Table 2)). IT의 공헌이 '舊經濟'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IT혁신은 대략 1860-1900년 사이에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20세기에 생산성 성장 황금시기의 도래를 가능케 했던 '2次 産業革命'에 비하면 부차적이라고 한다. IT혁신에 대한 유보적 견해는 이외에도 많다. 즉 한계효용이 체감한다, 시간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의 능력이 수확체감에 봉착할 것이다, 컴퓨터에 대한 수요는 단위탄력적이며 우향이동하지 않는다, 기존활동을 대체하거나 기존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수취함으로써 수익을 얻으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상으로 과잉투자 또는 중복투자를 행할 우려가 있다 등등이다(Gordon(2000)).

새로운 접근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內生的 技術進步모델과 새成長理論은 황금기 역사의 해석에 그 유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직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많은 발달이 기대된다. 결국 립 반 윙클이 캐츠킬 산에서 20년만에 내려와 고향동네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갔듯이 일상적으로 글을 맺을 수밖에 없다. 또한 <表 1>과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3년 이후의 경제성과가 크게 나쁜 것도 아니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75

팩시: (02)886-4231

E-mail: dyang@snu.ac.kr

參 考 文 獻

김신행(1999): 『경제성장론』, 서울, 경문사.

양동휴(2001): "기술, 경제, 역사 연구서설," 서울대경제연구소, 『경제논집』, 40-2.

3.

Abramovitz, Moses(1986): “Catching Up, Forging Ahead, and Falling Behin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6**.

Aghion, P., and P. Howitt(1998): *Endogenous Growth Theory*, Cambridge, MIT Press.

Aglietta, M.(1976):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English translation*, London, New Left Books.

Ark, B. van, and N. Crafts(eds.)(1996): *Quantitative Aspects of Post-War European Economic Grow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rmstrong, P., A. Glyn, and M. Harrison(1991): *Capitalism since 1945*, Oxford, Basil Blackwell, 김수행(역)(1993), 서울, 동아출판사.

Beckerman, W.(1962): “Projecting Europe’s Growth,” *Economic Journal*, **72**.

Boltho, Andrea(1982): “Growth,” in Andrea Boltho(ed.), *The European Economy: Growth and Crisis*, Oxford, Clarendon Press.

Boskin, Michael J., and Lawrence J. Lau(2000): “Generalized Solow-Neutral Technical Progress and Postwar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8023, December.

Brandolini, A., and N. Rossi(1997):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in the Industrial Countries,” in K. Chu, and V. Tanzi(eds.), *Income Distribution and High Quality Growt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renner, Robert(1998): “Uneven Development and the Long Downturn: the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from Boom to Stagnation 1950-1998,” *New Left Review*, **229**, May/June, 전용복 · 백승은 옮김(2001): 『혼돈의 기원: 세계경제 위기의 역사 1950-1998』, 서울, 도서출판 이후.

Chandler, Alfred(1994): “The Competitive Performance of U.S. Industrial Enterpris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Business History Review*, **68**, Spring.

Crafts, N.F.R.(1995): “The Golden Age of Economic Growth in Western Europe, 1950-1973,” *Economic History Review*, **48**, August.

Crafts, N., and G. Toniolo(eds.)(1996): *Economic Growth in Europe since 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vid, P.(1990): “The Dynamo and the Computer: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Modern Productivity Paradox,” *American Economic Review*, **80**, May.

David, P., and G. Wright(1999):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and Surges in Productivity:

- Historical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the ICT Revolution,” Stanford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99-026, July.
- DeLong, J. Bradford, and Barry Eichengreen(1993): “The Marshall Plan: History’s Most Successful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in Rudigar Dornbusch, Wilhelm Nolling, and Richard Layard(eds.), *Postwar Economic Reconstruction and Lessons for the East Today*, Cambridge, MIT Press.
- Denison, Edward F.(1967): *Why Growth Rates Differ: Postwar Experience in Nine Western Countri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_____ (1982): *Trends in American Economic Growth, 1929-82*,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Dornbusch, Rudiger, Wilhelm Nolling, and Richard Layard(eds.)(1993): *Postwar Economic Reconstruction and Lessons for the East Today*, Cambridge, MIT Press.
- Eichengreen, Barry J.(1994): “Institutional Prerequisites for Economic Growth: Europe after World War II,” *European Economic Review*, **38**.
- _____ (ed.)(1995): *Europe’s Post War Recove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6a):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Europe after World War II,” in N. Crafts, and G. Toniolo(eds.), *Economic Growth in Europe since 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6b): *Globalizing Capital: A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ed.)(1996c): *The Reconstruction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1945-1960*, Cheltenham, Edward Elgar.
- Eichengreen, Barry, and Torben Iversen(1999):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Labour Market,”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5**, **4**.
- Eichengreen, Barry, and Marc Uzan(1992): “The Marshall Plan: Economic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USSR,” *Economic Policy*, **14**.
- Feinstein, Charles, Peter Temin, and Gianni Toniolo(1994): “Three Shocks, Two Recoveries? Historical Parallels for the End of the Cold War,” *Revista Di Storia Economica*, **11**.
- _____ (1997): *The European Economy Between the Wa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eldstein, Martin(ed.)(1980): *The American Economy in Trans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rdon, David, Thomas Weisskopf, and Samuel Bowles(1983): "Long Swings and the Nonproductive Cycle," *American Economic Review*, **73**, May.
- Gordon, Robert J.(1999): "U.S. Economic Growth Since 1879: One Big Wave?," *American Economic Review*, **89**, May.
- _____ (2000): "Does the 'New Economy' Measure Up to the Great Inventions of the Pas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 **4**, Fall.
- _____ (2001): "Interpreting the 'One Big Wave' in U.S. Long-Term Productivity Growth," in Bart van Ark, Simon Kuipers, and Gerard Kuper(eds.), *Productivity, Technology, and Economic Growth*, Amsterdam, Kluwer Publishers.
- Helpman, E.(ed.)(1998):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and Economic Growth*, Cambridge, MIT Press.
- Hobsbawm, Eric(1994):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 London, Michael Joseph.
- Irwin, Douglas A.(1995): "The GATT's Contribution to Economic Recovery in Post-War Western Europe," in Barry Eichengreen(ed.), *Europe's Post-war Recove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drick, John W.(1961): *Productivit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ndleberger, Charles P.(1967): *Europe's Postwar Growth: The Role of Labor Supp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uznets, Simon(1963): "Notes on the Take-off," in W.W. Rostow(ed.), *The Economics of Take-Off into Sustained Growth*, London, Macmillan.
- Lamfalussy, A.(1961): "Europe's Growth: due to Common Market?," *Lloyd Bank Review*, October.
- Levine, R., and D. Renelt(1992): "A Sensitivity Analysis of Cross-Country Growth Regress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2**, December.
- Lewis, W. Arthur(1949): *Economic Survey*, London, Allen & Unwin.
- _____ (1954):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The Manchester School*, **22**, May.
- _____ (1978): *Growth and Fluctuations, 1870-1913*, London, Allen & Unwin.
- _____ (1980): "The Slowing Down of the Engine of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70, September.

Lindbeck, A.(1983), "The Recent Slowdown of Productivity Growth," *Economic Journal*, **93**, March.

Maddison, Angus(1964): *Economic Growth in the West*, London, Allen & Unwin.

_____ (1982): *Phases of Capitalist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1): *Dynamic Forces in Capitalist Development: A Long-Run Comparative Vie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5): *Monitoring the World Economy*, Paris, OECD.

_____ (2001):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Paris, OECD.

Mankiw, N. Gregory, David Romer, and David Weil(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52**, May.

Mansfield, Edwin(1983): "Long Wav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3**, May.

Marglin, Stephen A.(1990): "Lessons of the Golden Age: An Overview," in S.A. Marglin, and Juliet Schor(eds.),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Oxford, Clarendon Press.

Marglin, S.A., and J.B. Schor(eds.)(1990):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Reinterpreting the Postwar Experience*, Oxford, Clarendon Press.

Milward, Alan(1984):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5-5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elson, R., and G. Wright(1992):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Technological Leadership: The Postwar Era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

Nordhaus, William D.(1982): "Economic Policy in the Face of Declining Productivity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18**, May/June.

Olson, Mancur(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Romer, Christina D., and David Romer(2002): "A Rehabilitation of Monetary Policy in the 1950s," NBER Working Paper 8800, February.

Romer, Paul M.(1994): "The Origins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 Winter.

_____ (1996): "Why, Indeed, in America? Theory, History, and the Origins of Modern

- Economic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6**, May.
- Rosenberg, Nathan, and Claudio R. Frischtak(1983): "Long Waves and Economic Growth: A Critical Appraisal," *American Economic Review*, **73**, May.
- Rostow, W.W.(1978): *The World Economy*, London, Macmillan.
- _____ (1985): "The World Economy since 1945: A Stylized Historical Analysis," *Economic History Review*, **38**, May.
- Scammel, W.M.(1980): *The International Economy since 1945*, New York, Macmillan.
- Schumpeter, J.A.(1939): *Business Cycles*, New York, McGraw-Hill.
- _____ (1943):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Allen & Unwin.
- Sutcliffe, A.(1996): *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Western Europe since 1945*, London, Longman.
- Temin, Peter(1995): "The 'Koreaboom' in West Germany: Fact or Fiction?," *Economic History Review*, **48**, November.
- _____ (1997): "The Golden Age of European Growth: A Review Essay," *European Review of Economic History*, **1**, April.
- Toniolo, Gianni(1998): "Europe's Golden Age, 1950-1973: Specul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Economic History Review*, **51**, May.
- Wee, Herman van der(1986): *Prosperity and Upheaval: The World Economy, 1914-1980*, English tra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right, Gavin(1990): "The Origins of American Industrial Success, 1879-1940," *American Economic Review*, **80**, September.